

“아이들에게 ‘집다운 집’을 마련해주세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전남본부, 광주일보와 함께 캠페인
제도개선 서명운동·주거보증금 및 개보수비 지원 모금
광주, 아동주거빈곤 1만 8000명 ... 전체 아동의 5.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최근 우리 가족 상상놀이터 아트파크와 함께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은 최근 주거빈곤 아동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광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의 공동협력 프로젝트다.

이날 초록우산 홍보단은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명 운동과 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주거보증금 및 개보수비 지원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지역 5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초록우산 홍보단은 지난 9월 발매해 매주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캠퍼스를 찾아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홍보단은 원룸, 고시텔, 쪽방 등 도시형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지역 아동들의 실태 및 주거빈곤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지원을 통해 보

다 나은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펼쳤다.

현재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등에서 27차례 캠페인을 펼쳤으며 200여 명이 나눔에 동참했다. 홍보단은 다음달까지 광주여대, 서영대 등 광주지역의 캠퍼스 등에서 총 60차례 걸쳐 활동을 할 계획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주거빈곤 비율은 1만 8000명으로 전체 아동의 5.6%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주거빈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택 이외의 기타 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남과는 다른 형태의 도시형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광주지역의 대상아동 1061명의 거주유형을 데이터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임대 및 월세(92.5%)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다. 일부 아동들의 경우 슬레이트(석면) 집 및 쪽방, 모텔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광주지역의 저소득 가정 주거 형태의 특성에 따라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의 보증금 지원형태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관

계자는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완화제도 등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대폭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8000여명의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위협하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신생아 건강관리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대책 강화

복지부, 학대 사례 전수조사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 등록취소 등)를 조속히 시행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북구에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유사사례 전수조사 ▲신고센터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최근 1년 이내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와 조치결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

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복지부는 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 중이다. 복지부는 제공인력에 대해 자격검증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솔리언 또래상담자 연합 데이캠프



광주 12개 학교 60여명 참석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념광장에서 솔리언 또래상담자 연합 데이캠프를 실시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5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주최한 이번 연합 데이캠프에는 광주 시내 12개교 솔리언 또래상담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또래상담 우수사례 및 활동수기 발표를 통해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또래상담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다.

또한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또래상담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차은선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나’ 중심의 개인적 문화에서 우리 중심의 공동체 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초·중·고·대학생 RCY ‘사랑의 연탄 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식)는 최근 광주시 남구 서동과 동구 지산동 일대에서 초·중·고·대학생 RCY(Red Cross Youth, 청소년적십자) 단원 및 지도교사 약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
생명보험재단, 두암복지관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광주시 북구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 남성 홀몸 어르신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했다.

생명보험재단은 광주시 북구와 지난 8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성 홀몸 어르신들의 자립적인 생활 지원에 나섰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남성 홀몸 어르신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요리교실 ▲정리 수납을 지원하는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 ▲휴대폰 활용교육 ▲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 ▲심폐체조교실 ▲마사지 교실 등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통해 남성 홀몸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된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웃들과 함께 활기찬 100세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